

Often Suppressed ... Rarely Confronted

It's often suppressed & rarely confronted. It can fester for years....decades ... lifetimes. Many people take it to their graves because they fear the shame of confronting it. So they live trying to suppress it....& as they do, it compromises their character & damages their soul. At those rare moments it's properly confronted, God's grace brings healing & restoration. What is it?

It's the great problem that had cast a long dark shadow over the family of Jacob = \_ \_ \_ \_ \_  
In this chapter we see the way the Lord begins to confront it. It's the Lord's purpose to confront it in our lives as well...for our good.....Joseph had spent 13 years mostly suffering in Egypt until age 30 .... God took him from prison to PM....then after he'd stored up 7 years of grain in the time of plenty, we begin this chapter back in Canaan at the start of the 7 years of severe famine

The Word of Guilt (1-5)

v1, When Jacob learned that there was grain for sale in Egypt, he said to his sons, “Why do you look at one another?”

As the severe famine had set in...we see that Jacob's sons are dreadfully deficient. When the whole family was at risk of starving...we find them simply looking at one another...waiting for someone else to take the initiative — the responsibility to save them...As passive as they are.....there's one word that lies at the heart of their character defect...Egypt was the word..... Sinclair Ferguson has noted that there's such a thing as 'guilt words' — terms we prefer to avoid....They trigger memories of past failure or sin ... “Egypt” had left them looking at one another

숨기며, 마주치기를 꺼리는 것.

때로는 사람들을 이것을 숨기려고 하며, 이것과 맞닥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년 혹은 수십 년, 혹은 평생 사람들을 짓누릅니다. 사람들은 수치심 때문에, 이것을 평생 드러내지 않고 무덤까지 가져가려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숨기려 할 때, 이는 사람들을 위태롭게 하며, 그들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며 회복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야곱의 가족에게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큰 문제로, 바로 “죄책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이 이 문제를 직면케 하십니다.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문제를 직면케 하시며, 이는 어디 까지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요셉인 13 살 때부터, 30 살이 될 때까지 이집트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서부터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고, 7 년 동안의 풍년 뒤, 7 년 동안의 큰 기근이 임하게 됨을 오늘 구절에서 보게 됩니다.

죄책감이라는 단어 (1~5 절)

1 절 “그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극심한 기근이 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야곱의 아들들의 무능함을 보게 됩니다. 가뭄 가운데 굶어 죽어 가는 위험 가운데서도, 이들을 그저 서로 바라보고만 있고, 다른 누군가가 나서서 자신들을 구해 주기를 바랍니다...이들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있을 때, 오늘 구절에서 그들의 마음을 찢리게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 단어는 바로 “애굽”이라는 단어입니다. “애굽”이라는 장소는 그들이 자신의 형제인 요셉을 팔은 곳으로, 지난날 자신들의 죄를 떠오르게 하는 단어였습니다...

v2, 'And he said, "Behold, I have heard that there is grain for sale in Egypt. Go down and buy grain for us there, that we may live and not die." So ten of Joseph's brothers went down to buy grain in Egypt.'

Commanded by their father they set off to the place of guilt. Their negligence with Joseph in Jacob's mind carried over to his deep-seated distrust of them...which is why we read v4, '(But) Jacob did not send Benjamin, Joseph's brother, with his brothers, for he feared that harm might happen to him. Thus the sons of Israel came to buy among the others who came, for the famine was in the land of Canaan.'

The loss of Joseph long ago under the supposed care of his older brothers sat heavily upon Jacob...Both father & sons had that dark stain on their family conscience...the brothers carried two decades of suppressed guilt...their father... over the same time carried grief & suspicion of his own sons who he knew were responsible in large measure for that loss. But in God's providential grace...His plan was coming to fulfilment as the scene moves back to Egypt....

### Joseph, God's Agent to Awaken Guilt (6-25)

v6, '(Now) Joseph was governor over the land. He was the one who sold to all the people of the land. And Joseph's brothers came and bowed themselves before him with their faces to the ground.'

The Lord had been shaping Joseph through his prison ordeal to be this humble yet mighty agent of God's saving grace.

2~3 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아버지의 명령으로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과거 다른 아들들의 부주의로 요셉을 잃게 되었다고 생각한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신뢰하지 않기에, 4~5 절에서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 버린 후, 수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죄책감 가운데 억눌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 또한 형제들의 보살핌 가운데 있었던 요셉을 잃음은 그의 마음에 응어리로 남아, 자기 아들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은혜 가운데, 이 가족들을 다시 애굽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 죄책감을 일깨우게 하는 요셉. (6~25)

6 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주님께서는 감옥의 시련을 통해 요셉을 겸손한 인물로 다듬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은혜의 대리인이 되도록 가다듬으셨습니다.

The hidden hand of God had been moving in mighty ways across the decades ... now through the weather ... & here narrowing down to one man before his guilt-ridden brothers ignorant of the one before whom they bowed.

V7, 'Joseph saw his brothers and recognised them, but he treated them like strangers and spoke roughly to them, "Where do you come from?" He said. They said, "From the land of Canaan, to buy food." And Joseph recognised his brothers, but they didn't recognise him.'

The Lord had transformed the youthful 17 year old into the 38+ year old ruler before them ...inside & now outwardly — he would have been beardless & shaven — perhaps even wearing a gold coloured head piece...with make up that both Egyptian men & women wore...along with fine linen clothing & gold jewellery...they didn't recognise him.

Joseph needed to know, 'were they really the same jealous & murderous mob that had acted with such hatred towards him all those years ago?' So he spoke roughly to them...but lest that testing spill over to vengeance. The Lord's saving revelation from all those years earlier came to him, at just the right time. v9, '(And) Joseph remembered the dreams that he had dreamed of them. And he said to them, "You are spies, you have come to see the nakedness of the land."

In the midst of the dramatic confrontation where under God, Joseph held the lives of his brothers in the palm of his hand...God gave\*\*\* him recall of the dreams that were a catalyst of his brothers' bitter jealousy. Now we see the added reason that the Lord had made that first dream about sheaves of grain. Grain was the very commodity that had brought them to their knees before Joseph...Grain was the same subject that had dominated Pharaoh's second dream that Joseph interpreted & that had elevated him to lord

하나님의 숨은 손길은 수십 년이란 시간 동안 그 전능함 가운데 계속 움직이셨습니다... 날씨를 섭리 가운데 움직이심으로 기근에 들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죄책감 가운데 있는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7~8 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17 살 때 마지막으로 본 요셉이, 38 살 이 넘게 되었을 때, 요셉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을 것입니다...그는 자기 수염을 깎고, 이집트 사람들과 같은 옷과 금 보석으로 치장하였을 것이기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여전히 질투 많으며 살기로 가득한 자들인지 시험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거칠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이 복수로 번지지 않도록, 알맞은 시기에, 요셉은 자신이 꿔던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9 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꾀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형제들을 드라마틱하게 직면하게 된 요셉은, 그들의 목숨을 자신의 손에 쥐게 됩니다...그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지난날의 꿈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왜 요셉의 첫 번째 꿈에 곡식 단이 등장하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이 곡식을 얻기 위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또한 바로의 꿈에서도 곡식이 등장하고, 이런 곡식의 꿈을 요셉이 해석함으로,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Grain was keeping them all humble...Joseph by the knowledge that his power was God-given...the brothers by their desperation to survive.

In response to Joseph's testing... v10, 'They said to him, "No, my lord, your servants have come to buy food. We are all sons of one man. We are honest men. Your servants have never been spies."

Well Joseph knew that was a half truth...v12, 'He said to them, "No, it is the nakedness of the land that you have come to see." And they said, "We, your servants, are twelve brothers, the sons of one man in the land of Canaan, and behold, the youngest is this day with our father, and one is no more." But Joseph said to them, "It is as I said to you. You are spies. By this you shall be tested: by the life of Pharaoh, you shall not go from this place unless your youngest brother comes here. Send one of you, and let him bring your brother, while you remain confined, that your words may be tested, whether there is truth in you. Or else, by the life of Pharaoh, surely you are spies." And he put them all together in custody for three days.'

Joseph was testing them through discipline. He knew first hand the fact that hardship has its way of purging & refining. Even a liberal pastor from last century could acknowledge that 'No character is ultimately tested until it has suffered.'

Joseph was God's agent to awaken the long-suppressed guilt in the lives of the men under his authority.

결국 이 곡식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겸손해 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왕의 곡식 꿈을 해석했기 때문이며...요셉의 형제들이 겸손해 짐은 그 곡식을 얻기 위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입니다.

이런 요셉의 시험에, 10 절에서 그의 형제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은 이것이 반쪽짜리 진실임을 알았습니다... 12~17 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삼 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은 징계를 통해 그들을 시험하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고난이 사람을 연단 하며 정결케 하는 수단임을 직접 알고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진영의 목사조차 고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통을 겪기 전까지 그 어떤 성품도 궁극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의 권위 아래 있는 그의 형제들의 삶에 오랫동안 억압되어 있던 죄의식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Three days in the prison after his harsh accusations would humble them as they were forced to face each other in another kind of pit...Suffering, in God's providence for the believer, is a particular means to give occasion for humble, self-reflective heart-searching. Hebrews 12:6 'the Lord disciplines the one He loves and chastises every son whom He receives.'

If you find yourself disheartened by various struggles...know that the Lord is using them to break the things we might have begun to place before Him...to refine us...to strengthen us...& to bring us back to Him. Trials are God's unique time of testing & building.

V18, 'On the third day Joseph said to them, "Do this and you will live, for I fear God: if you are honest men, let one of your brothers remain confined where you are — in custody, and let the rest go and carry grain for the famine of your households, and bring your youngest brother to me. So your words will be verified, and you shall not die." And they did so.'

This trial to which Joseph had subjected his brothers was on one hand aimed at exposing & awakening their guilty consciences to reveal their hearts...& on the other...to provide the opportunity for him to reunite with & save his whole family

Joseph's achieves this first purpose...V21, 'Then they said to one another, "In truth we are guilty concerning our brother, in that we saw the distress of his soul, when he begged us and we did not listen. That is why this distress has come upon us." And Reuben answered them, "Did I not tell you not to sin against the boy? But you did not listen. So now there comes a reckoning for his blood."

요셉의 이런 고발로 감옥에서 3 일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낮아짐 가운데 겸손케 되었을 것입니다...고난이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은 그들을 겸손케 하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6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으로 상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의 목적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것을 깨부수시며, 우리를 연단 시키시고, 힘주시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심입니다. 환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며 세우시는 특별한 수단입니다.

18~20 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가한 시험은, 그들의 죄책감을 드러내 그들의 참된 마음을 나타내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모든 가족과 함께 재연합 함으로 가족을 구원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자신의 첫 번째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21~22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Though it had happened more than 20 years earlier...the sequence of events was engraved on their guilty consciences. Here they report what chapter 37 was silent about... ‘the distress of Joseph’s soul...as he begged them but they refused to listen.’

Back in chapter 37, Reuben...the oldest brother had intervened to rescue Joseph from his nine murderous brothers when he urged them not to take Joseph’s life...instead they put him into the pit...Reuben's plan of coming back later to return Joseph to his father had failed... While he’d wandered off & the rest were planning to murder Joseph...Judah — the fourth oldest lead his brothers to sell him to the passing Ishmaelite slave traders who brought him to Egypt.

All those years earlier, they’d called Joseph ‘this dreamer’...now, notice they refer to him as ‘our brother’. Reuben refers to him as ‘the boy’.

In God’s grace, though they’d suppressed the guilt for > two decades...the Lord had been working on them too. Now they were in this dire situation in the foreign land under the absolute power of this harsh prince...that which they’d remained silent about for all those years...the lie they’d been living before their father...they found themselves confessing to one another.

As they spoke in Hebrew, unbeknownst to them ... Joseph understood every word. v23, ‘They did not know that Joseph understood them, for there was an interpreter b/w them. Then he turned away from them and wept. And he returned to them and spoke to them. And he took Simeon from them and bound him before their eyes.’

비록 그 일이 2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여도, 그들은 여전히 양심의 자책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37장에서 언급 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37장을 다시 보면, 형제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다른 9형제로부터 요셉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구덩이에 빠져있던 요셉을 다시 돌아와서 구해, 아버지께 돌려 보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이런 상황 가운데 넷째 아들인 유다는, 요셉을 죽이는 대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기를 제안하고,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어떻게 부르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전에는 “꿈꾸는자”로 부르다가, 이제는 그를 “아우”라고 부릅니다.

비록 그들이 수십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타지 땅에서 가혹한 왕자의 절대적 권력에 의해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수년동안 아버지 앞에서 거짓된 삶을 살아왔던 그 형제들은, 지난날의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기 시작 합니다.

그들이 히브리 언어로 말할 때, 요셉은 그들의 모든 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23~24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Joseph shed tears of grief to hear the confessions from his brothers about their brutality against him. They'd been so callous back then ... what a revelation for Joseph to have heard how deeply their sin had affected them over all that time.

But he still needed to know more....So Joseph picked Simeon, the 2nd eldest after Reuben...a leader of the violence against him... Simeon needed more testing & humbling by separation from the pack ... so Joseph detained him. The other brothers also needed testing to discern who or what they loved most....v25, 'And Joseph gave orders to fill their bags with grain, and to replace every man's money in his sack, and to give them provisions for the journey. This was done for them.'

### Joseph, God's Agent to Arouse Fear (26-38)

On their way back, we read that one of them discovers the money in his sack & in v28 tells his brothers to which their response we see is 'their hearts failed them, and they turned trembling to one another, saying, "What is this that God has done to us?"'

Joseph had arranged for their money to be returned to test them....would they value Simeon or the silver? Years earlier it was the silver over a brother. Joseph — the God-fearer was not only awakening their guilt but arousing that which had been missing in their guilt-suppressed lives — a holy fear of God's sovereignty.....

After they'd recounted their interaction with the 'lord of the land' to their father...including the fact that he'd kept Simeon behind until they return with Benjamin to prove themselves....They found the rest of the money for the grain still in their sacks...For the second time we read v35 'they were afraid.'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는 형제들의 말을 알아들은 요셉은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립니다...이전에는 잔혹하기만 했던 요셉의 형제들이, 오랜 시간 동안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요셉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며 요셉을 해하는데 앞장섰던 시므온을 끌어냅니다... 시므온은 그 무리에게 분리되어 더 많은 시험과 낮아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 또한 그들이 누구 혹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에 대한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25 절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대리인 요셉 (26~38)

형제들이 다시 돌아가는 길에, 그 곡물 자루에 돈이 들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8 절에서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어져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 자루에 돈을 넣은 것은 요셉으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이전에 그들은 요셉을 팔아 형제보다 돈을 더 귀히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과연 시므온을 더 귀히 여길까요? 아니면 돈을 더 귀히 여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요셉은 그들의 죄책감을 일깨워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 섭리의 거룩한 경외심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아들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시므온은 잡혀 있고,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그리고 나머지 돈을 곡식 자루에서 발견하게 되고, 35 절에 더 다시 한번 언급하기를 "다 두려워하더니"라고 말씀 합니다.

Now that the Lord had aroused fear ... Jacob confronts their guilt, v36 "You have bereaved me of my children: Joseph is no more, and Simeon is no more, and now you would take Benjamin. All this has come against me.'

In desperation, Reuben vowed to his father by the life of his own two sons...to put Benjamin into his care. Jacob refused.

Now with limited food...Simeon in prison...bound to Egypt for further supplies & yet unable to return without Benjamin...what more could have humbled them in sorrow & utter fear of the situation to which the Lord had brought them but this? Joseph was God's agent to arouse the fear that had been absent & the sorrow for their sin that had been repressed for two decades. & though the Lord was bringing them to the end of themselves.... it would take several more months over another 1 1/2 chapters before the Lord would bring reconciliation.

### God's Agent & Endpoint for Confronting & Transforming Hearts

Joseph was the agent of God's severe mercy means to expose & awaken the guilt that had been suppressed & left festering for all that time. He was God's saviour from starvation...& God's means to confront their concealed corruption. Once again..... Joseph is a wonderful signpost who points to the infinitely greater Jesus before whom we bow as He exposes our guilt by His Word & Spirit & is the only One to deal with it....

Though our natural tendency also is to suppress the guilt of sin...By His irresistible grace the Lord will continue dealing with those who are His...until we surrender & hand it over....He who died to take the punishment for sin also rose & lives to intercede for us. He not only lifts the burden of guilt...He forgives, cleanses, restores, renews, strengthens & transforms us....King David presents a picture of the gospel's confronting & transforming grace in Psalm 32:3-7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하시며, 야곱은 그들의 아들을 질책합니다... 36 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런 절박함 가운데 르우벤은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기를 베냐민을 다시 데려올  
 것이라 하고, 야곱은 이를 거절 합니다.

음식은 떨어져 가고 있고...시므온은 감옥에 갇혀 있으며...곡식을 더 받으러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무엇이 그들을 더 겸허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수년이라는 시간 동안 죄에 대한 슬픔이 없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요셉은 이런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죄책감을 드러내며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으며, 굶주림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자였고, 감추어져 있는 그들의 부패를 직면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은 다시 한번 위대한 구원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며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의 죄책감을 억누르며 감추려 할지라도, 저항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책감을 모두 드러내고 그에게 맡기게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사 우리를 위해 중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책감을 가져가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시편 32:3~7